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 이준호 지음 -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강 병 직



이준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2022년 10월, 우리 대학 미술관에서 개최된 《다섯 작가의 꿈》이라는 전시회 오픈식에서 였다. 작품을 둘러보던 중 예상치 못한 판타지풍의 작품들에 매료되어 감상하던 차에 작품의 주인공으로 소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니 전시회 자체는 작품 활동을 하는 우리 대학 출신을 초청한 초대전이였다.

“아, 그렇지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작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림이 좀 독특한데 재료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나요?”

작가는 출품한 작품들은 책에 들어가는 삽화로 그려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을 보여주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그림의 원화가 오늘 전시된 작품들입니다.”

소개받은 책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과학 서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콜리티의 회화 작품들이 눈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아니, 이것은 삽화 수준이 아닌데요? 그냥 초현실주의 회화 작품 같은걸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린 건가요? 포토샵이나 일러로 그린 것 같기도 하고.....”

“하하, 그냥 oo사의 노트 휴대폰으로 그린 겁니다.”

“정말요? 저도 그 제품 쓰는데, 이런 고콜리티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나요?”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이 갖는 첫 번째 매력은 바로 이 점이다. 통상적으로 과학 도서는 딱딱하다는 생각을 갖게 마련인데 이 책은 장을 여는 순간 명작들이 눈을 반기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작품들은 단지 내용을 설명하는 삽화 정도가 아니라 한 작품 한 작품이 감상용 회화로서 높은 작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림들이 손안에서 휴대폰으로 그려진 것이라니.....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차분히 앉아서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기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을 마치고 틈틈이, 어디 갔을 때 잠깐씩, 그렇게 짬짬이 시간을 내어 그린 것이라 한다. 책을 열면 휴대폰에서 그려진 작품이라 믿기 어려운 그림들에 탄성을 지을 독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 책의 두 번째 매력은 그림과 함께 풀어내는 과학 이야기의 솜씨가 일품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과학 이론을 쉽게 설명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사람이 하는 일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호기심과 엉뚱함, 실패와 비난, 성취와 감동이 버무려진 사람들 이야기로 풀어낸다. 그리하여 단지 과학 이론을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학 드라마처럼 이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이야기로 풀어지며 자연스럽게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가령 저자는 르네상스 시대의 갈릴레오와 과학의 발전을 설명함에있어 실감 나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낸다.

“갈릴레오는 우연한 기회에 렌즈 2개가 결합 되어 물체가 확대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시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보다 발빠르게 60배나 확대할 수 있는 망원경을 제작하였다. 이 망원경은 뜻하지 않은 놀라운 발견을 보여주고 영원할 것 같았던 세계관에 균열을 갖게 하였다. 왜냐하면 달을 관찰하니 표면이 거칠거칠하다는 것과 태양을 관찰하여 흑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해와 달, 별과 같은 천상의 세계는 지상의 세계와 달리 완벽할 것이라 생각했고 심지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달의 거친 표면과 태양의 흑점은 천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이다. 또한 목성에 4개의 위성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태양과 달, 별은 모두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천동설에 금이 가는 순간이다, 목성의 위성은 지구가 아닌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기 때문이다.”

갈릴레이에 대한 이같은 이야기는 왜 17세기 과학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인류가 우주를 향해 눈을 돌리게 하는지를 설명한다. 생생하게 전달되는 과학

이야기의 힘은 오랫동안 팟캐스트 《과학이 빛나는 밤에》를 방송한 이력 덕분 이리라.

저자는 청주교대를 졸업하였고 현재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서를 꼭 과학자만 쓰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닌 초등교사가 쓰는 과학서는 어떤 모습일까? 오랫동안 초등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은 실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 엄두가 안나는 과학을 초등학생 6학년이 이해할 수 있듯 알기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지구, 인류의 시작부터 문명과 문자에 이르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과학’에 대한 한 편의 드라마를 선사할 것이다.